<2014년 8월 13일 수요말씀> 중요 (각 교회 교역자들이 준비하고 전할 것)

관리는 생명이다

'영'을 존재시키기 위해
'육'과 '혼'과 '지구'와 '만물'을 창조하고 관리하신다

본 문 마태복음 26장 41절

할렐루야!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.

이번 주에는 **'관리는 생명이다.'** 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, '자기 영' 을 위해서 '자기 육 관리' 와 '육에 해당되는 것들 관리' 와 '자연, 만물 관리' 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었습니다.

그러면서 <성자의 생명 관리 특별 계시>를 말씀해 주면서, '자기 관리' 와 '생명 관리' 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.

오늘도 주일말씀에 이어서 <관리>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, 주일말씀으로 못다 한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.

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<관리>란 사람이든, 물건이든, 집이든, 동물이든, 식물이든지 **존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**입니다.

무엇이든 **<관리>**를 제때 안 해 주면 썩거나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.

그러니 제때 <관리>를 하면 썩지 않고, 각종 문제가 생기지 않고, 존재하게 됩니다.

그래서 **<관리>**는 **'생명'** 이며, **'제2의 생명 창조'** 이며, **'재창조'** 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* <관리>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,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.

◆ **'한 존재물' 을 창조하고 존재시키기 위해 '거기에 필요한 다른 존재물' 을 창조하고 관리하며 존재시켜야 됩니다.**

사람이 '노래하는 새' 를 아무리 관리하고 사랑해 줘도 '새가 사는 환경' 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, 결국 '새' 도 죽게 됩니다.

'새가 먹는 벌레' 도 멸하지 말고 존재시켜야 되고, '벌레가 먹고 존재하는 것' 도 없애지 말고 관리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되고, '새가 사는 환경' 도 깨끗하게 관리해 줘야 '새' 도 존재합니다.

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'만물보다 높은 존재' 인 <인간>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 '인간보다 낮은 존재물' 인 <만물>을 그 차원대로 생명시하며 관리하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(* <관리>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듣겠습니다. 잘 듣기 바랍니다.) <영상1> 매우 중요

♦ **<지구>만 존재시킬 수 없습니다. '지구가 사는 터전' 인 <우주 만물>이 있어야 결국 <지구>가 존재하게 됩니다.**

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지구>를 존재시키기 위해 <우주 만물>을 창조하여 생명시하며 관리하십니다.

♦ **또한 <인간>만 존재시킬 수 없습니다. '인간이 사는 터전' 인 <지구 만물>이 있어야 결국 <인간>도 존재하게 됩니다.**

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인간>을 존재시키기 위해 <지구 만물>을 창조하여 생명시하며 관리하십니다.

♦ **또한 <인간의 영>만 존재시킬 수 없습니다. '영의 터전' 인 <육>이 있어야 결국 <영>도 존재하게 됩니다.**

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인간의 영>을 존재시키기 위해 <인간의 육신>을 창조하여 생명시하며 관리하십니다.

♦ **고로 우리도 <자기 육신>을 생명시하며 관리해야 됩니다. 그래야 <자기 혼과 영>을 존재시키고 성장시키고 '천국의 영' 으로 변화시켜 천국에 가게 됩니다.**

♦ **<인간의 영>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기 위해 <우주>와 <지구>와 <인간의 육>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입니다.**

→ **그래서 하나님은 '<인간의 영>을 휴거시켜 취한 것' 이 '<우주**

만물 전체>를 취한 것' 과 같다고 하셨습니다.

→ 그러니 **<자기 영>이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면,** <인간>은 무(無)에서 끝나고 말게 됩니다. <끝>

★ 하나님이 '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' 은 <인간>을 창조하기 위함이고, **'인간을 창조하신 목적' 은 <인간의 영>을 창조하고 구원하여 천국에 오게 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함**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◆ <인간의 육>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'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' 를 믿고, '그가 보내신 메시아' 를 믿고, 그를 통해 '시대 말씀' 을 배우고 행하면서 '하나님의 뜻' 대로 살아야 / 그 <영>이 '하늘나라 형체' 로 형성되고 변화됩니다.

그리함으로 구원받고 휴거되어 '천국' 으로 가서 영원히 생명권 속에서 성삼위를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.

이것이 '하나님의 창조 목적' 을 이루는 것입니다.

◆ <육>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'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' 를 믿지 않고, '그가 보내신 메시아' 를 믿지 않고, '시대 말씀' 을 듣지 않고, 들었어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.

결국 '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' 을 이루지 못합니다.
고로 <육>도 <영>도 가면서 무(無)로 사라집니다.

<육>은 생이 다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, <영>은 사망 지옥으로 사라져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 됩니다. <끝>

하나님이 '구원받지 못한 영' 을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.

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'구원받지 못한 영' 을 지옥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'매미' 가 되지 못한 '굼벵이' 는 사람이 손을 안 대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 기어 다닙니다.

이와 같이 '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영' 은 하나님이 그 영을 지옥에 넣지 않아도 스스로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.

'자기 육의 행위와 삶의 결과' 로 인해 <자기 영>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 중요

◆ <지옥>은 순간 가는 것이 아닙니다.

'자기 육의 악한 행위' 로 인해 '자기 영' 이 지옥에 가는데,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니, '육의 행위' 로 인해 '그 영' 이 악하게 변질되어 <지옥>에 가는 것입니다.

◆ <천국>도 순간 가는 것이 아닙니다.

'육' 이 성삼위를 믿고,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,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면, 그로 인해 '영' 이 점점 <천국의 형체>로 변화됩니다.

마치 나무가 커서 점점 변화되듯, 집을 지을 때 점점 완성된 집으로 변화되듯, '영' 도 '자기 육의 행위' 로 인해 점점 <천국의 형체>로

갖추어져서 〈천국〉에 가는 것입니다.

◆ '천국을 향해서 사는 영' 은 하나님이 〈천국〉으로 이끌어 주시지만, '지옥으로 가는 영' 은 하나님이 〈지옥〉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십니다. **'선악 간의 자기 육의 삶의 결과' 로** '자기 영' 이 〈천국〉에 가거나 〈지옥〉에 가게 됩니다. <끝>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〈육의 세계〉를 보면, '같은 땅' 에 살면서 개성대로 '수만 층' 으로 나뉘어 살아갑니다.

〈영의 세계〉도 육의 세계와 같이 '수만 층' 으로 나뉘어 있는데, 〈영의 세계〉는 '같은 땅' 이 아닌 '다른 위치의 세계' 로 나뉘어 살아갑니다.

'자기 육의 행실의 결과' 로 '자기 영' 이 변화되어, **자기 영이 변화된 만큼 그 차원의 영의 세계에서** 살아갑니다. <끝>

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**'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닮은 영'** 이 돼야 〈천국〉에 갑니다.

악을 행하여 '사탄을 닮은 영' 이 되면, 그 영이 결국 〈악의 세계〉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농부는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, 모든 나무를 다 가꾸고 다 퇴비를 해 줍니다. 어떤 나무만 안 가꾸고 퇴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.

고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동안 미련 없이 가꾸었으니,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밖에 버려둡니다.

열매를 맺은 나무들만 옮겨서 자기 정원에 심습니다.

♦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.

모든 인생들을 다 도우시고, <만물>이나 <양심>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, 인생들 모두를 위해 <메시아>를 보내시어 '생명의 말씀'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십니다.

지구 세상 모든 인생들 중에서 '구원받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같이 된 자들'은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그동안 미련도 없이 투자하며 구원하고자 했기에 생명권 밖으로 버려두십니다.

♦ **'열매를 맺지 못한 과일나무'는 밖에 버려두고 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. 그 나무는 베고, 그 자리에 '다른 과일나무'를 심어, 열매 맺기를 희망하며 정성껏 가꿉니다.**

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. 그동안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으니 '구원의 열매'를 맺지 못하면, 버려둬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. 어서 '다른 생명'을 데려와 희망으로 가르칩니다.

♦ '천국의 생명의 열매'를 맺지 못한 자들은 '세상 육신의 삶'만 살다가 끝납니다. '그 영'은 사망으로 사라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♦ '자기 영'이 <지옥>이나 <흑암 사망> 쪽에 가 있으면, 과거에

‘자기 육’ 이 아무리 사랑의 향락, 부귀영화, 영광, 권세, 명예를 누렸더라도 그 기억이 뇌에서 제거된 바가 되어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, **현실**에 뇌와 심장을 칼로 찌르고 뜨거운 불로 지지는 고통만 느껴져서 괴롭습니다.

그러나 지난날 ‘자기 육신의 삶’ 이 〈생명의 삶〉이었기에 ‘자기 영’ 이 〈생명권〉에서 살아 있어 구원받고 천국 급에서 산다면, ‘육의 기쁨’ 이 ‘영’ 에게도 연속되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. 또한 ‘육이 받은 영광, 희락, 명예, 권세’ 를 ‘영’ 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, 생각할수록 기쁨이 폭발되고, ‘육’ 으로도 ‘영’ 으로도 〈천국의 삶〉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.

◆ 사람이 **현재 성공하여 이상세계에서 사는 자**는 ‘과거에 겪었던 좋은 일’ 뿐 아니라 ‘고통스러웠던 일’ 까지 다 추억하면서 이야기하며, 보람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누리고 살게 됩니다.

그러나 **현재 실패 속에 고생하면서 생활의 고통을 받고 사는 자**는 ‘과거의 좋은 일’ 을 생각할수록 더욱 괴롭고 ‘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들’ 로 인해 연속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.

◆ **영의 세계에서도 그러합니다. 구원받고 휴거되어 성공한 영은 ‘과거에 세상에서 좋았던 일들’ 과 ‘고통스러웠던 일들’ 까지 다 보람이 되어,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.**

그러니 꼭 자기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성공해야 됩니다. 그러면 ‘과거에 고생했던 일’ 이나, ‘좋았던 일’ 이나, ‘몸부림쳤던 일’ 이나, ‘주를 따르면서 핍박받았던 일’ 이 모두 이야깃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욱 보람을 누리고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.

<전환>

*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♦ **‘한 존재물’을 창조하고 존재시키기 위해서는 ‘거기에 필요한 존재물’을 창조하여 존재시키고 관리해야 됩니다.**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

- 하나님은 ‘식물’을 창조하여 존재시키기 위해서 ‘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흙’을 창조하여 존재시키고 관리하십니다.

- 또한 ‘흙’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‘우주와 지구’를 창조하여 존재시키고 관리하십니다.

- 또한 ‘지구’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‘만유인력과 중력’을 창조하여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‘공전과 자전’을 하게 하여 생명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.

<만사의 모든 존재 이치>가 그러합니다. 사람도 ‘영’만 창조하여 관리하면, 존재하지 못합니다. ‘육’을 창조하고, ‘혼’을 창조하고, ‘육이 사는 지구’를 창조하고, ‘지구 만물’을 창조하여 계통별로 약육강식으로 살도록 창조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. <끝>

♦ ‘희귀 동물’을 존재시키려면, ‘은신처’가 필요합니다. 또한 그 동물이 먹을 ‘먹이’가 필요합니다. ‘희귀 동물’을 존재시키기 위해 ‘은신처’와 ‘먹이’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.

‘물고기’도 사다 놓기만 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. 물고기가

살 '물' 이 필요하고, '먹이' 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'물의 환경' 을 만들어 주면서, '물고기가 살 여건' 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래야 '물고기' 가 죽지 않고 존재합니다.

이와 같이 <하나님 주관권의 생명의 역사>로 오면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, 사람들도 <역사>를 존재시키기 위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놓고 관리해야 사람들이 모여들어 <구원의 역사>를 펴게 됩니다.

(*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<핵>이 되는 말씀을 전해 주고
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) <영상6> 중요

◆ 돌이나 동으로 '조각상' 을 만들어 놔도 세울 수는 없습니다. '조각상' 을 세울 지지대' 를 만들어야 됩니다. '지지대' 가 없으면 '조각상' 을 세울 수 없습니다.

이와 같이 '주체' 가 존재하려면 '대상' 이 있어야 됩니다.

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이 세상에 강림하여 <뜻>을 이루려면, '발판' 이 있어야 합니다.

'그 발판' 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쓰는 <육신을 가진 구원자> 입니다. 그리고 '하나님의 뜻을 이룰 또 하나의 발판' 이 있으니, <구원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듣고, 깨닫고, 따르는 자들>입니다.

모두 <하나님의 뜻>을 이루는 '발판' 을 만났으니, 믿고 따르고 행하여 <하나님의 뜻>을 이루는 '또 하나의 발판' 이 되기를 성자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! <끝>